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준 전임 교육목사(전도사) 다섯분 청빙하다

우리교회는 교육의 기둥을 더 확고히 세우고 천국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준 전임 교육목사(전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다섯분의 교역자를 청빙하게 되었다.

유년부, 초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맡게될 신임 교역자는 다음과 같다. 또한 교회는 준 전임 교역자 청빙으로 내년도 각 교회학교를 지도할 지도 교역자를 임명하였다. 각 교회 학교별 지도 교역자는 다음과 같으며 더욱 풍성한 열매맺는 한해가 되도록 기도한다.



조대영 전도사(1967. 8.13 생)

- 서울 산업대 전산과 졸업
- 한양대 산업대학원 전산과 졸업
- 장신대 신대원 졸업
- 장신대 대학원 기독교 교육과 재학중
- 서울교회 유아부 교육 전도사



김희정 교육전도사(1962.10. 1생)

- 연세대 가정대학 졸업
- 장신대 신대원 졸업
- 장신대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재학 중
- 을지로 교회 유치부 교육전도사
- 영락교회 유년부 교육전도사



장재환 목사(1965. 7.19 생)

-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졸업
- 장신대 신대원 졸업
- 장신대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졸업
- N.Y Institute of Technology (인간관계 전공) 석사
- 광성교회 교육지도 (소년부, 초등부, 대학부)
- 충은교회 교육전도사(고등부, 청년부)
- 휘경교회 교육목사

송구영신 예배

-2003년 1월1일 0시-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1월1일 0시에 드려진다. 2002년 12월 31일(화) 밤 11시 30분 소동이 시작된다. 예배 30분전 본당에 입실하여 보내는 해를 돌이켜 보면 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는 해를 기대와 각오로 맞이한다. 새해 1월1일에는 수요일이다. 0시 예배 후에 있을 새벽기도회(5시30분), 수요일 I 부 예배는 회집하지 않는다.

2003년도 교회학교 교사 임명

오늘 주일 | II III부 예배시간에

교회는 오늘 주일 I II III부 예배시간에 2003년에 주님이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맡긴 생명을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각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하는 순서를 갖는다.

깊고도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을 깊이 공부하고 맡겨진 생명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사가 되도록 기도한다. I 부 예배시간에는 교육 1,2국 II부 예배시간에는 교육 4,5국 III부 예배 시간에는 교육 3국 교사들을 임명한다. 오늘 임명받은 교사명단은 오늘 주부에 간지로 삽입되어 있다.

- 유아부: 박금실 전도사
- 유치부: 미정
- 유년부: 조대영 전도사(어린이 찬양예배)
- 초등부: 김희정 전도사(어린이 수요예배)
- 중등부: 윤영국 목사
- 고등부: 오정식 목사
- 대학부: 장재환 목사
- 청년부: 이태훈 전도사
- 장년1부: 이용식 목사
- 장년2부: 이용식 목사

- 장년3부: 한상은 목사
- 장년4부: 서명철 목사
- 장년5부: 김은호 목사
- 사랑부: 이성득 목사
- 에바디부: 임규현 목사
- 새가족부: 지예영 전도사
- 신혼가정부: 이규정 목사
- 신앙강좌1부: 김영환 목사
- 신앙강좌2부: 이만열 전도사
- 영여성경부: 미정



임규현 목사(1962.3.12 생)

- 장신대 신학과 졸업
- 장신대 신대원 졸업
- 영락농아인교회 아동부 교육전도사
- 온양농아인교회 전임 전도사
- 광주 서남농아인교회 담임목사
- 영락농아인교회 부목사



이태훈 전도사(1970. 3. 2 생)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졸업
- Trinity Evangelical 신학교 졸업 (미국)
- 시카고 Grace Church 교육전도사(중등부)
- 서울교회(인턴쉽 자격) 전도사

2003년도 목회 계획 확정되다

교회는 2003년도 목회 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2003년도 표어: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롬 14:17)
- 행동지침: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내년 일년이 되도록 한다.

성경통독자 시상

우리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많이 읽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매월 셋째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신구약 66권 말씀을 통독하신 성도들을 시상하는 순서를 갖고 있다. 금번 성경통독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신앙성경 필사본을 만든 사라 여전도회원 13명도 함께 시상한다.

1득

- 윤숙희 집사(5교구) 박현주 성도(7) 고윤임 성도(7) 송갑순 권사(8) 이영자 권사(8) 권명자 권사(8) 이현옥 성도(8) 김인식 권사(8) 강정옥 권사(9) 김은애 권사(9) 이성애 권사(9) 장명순 권사(9) 이영희 권사(10) 김선미 권사(11) 이남복 권사(5) 박명석 권사(12) 서희숙 집사(12) 노선균 성도(11)

신약성경 필사본 작성 사라 여전도회원

- 백영희 권사 김중자 권사 최경애 권사 심계를 권사 박종만 권사 배영애 권사 허인숙 권사 유후자 권사 국산옥 권사 최금례 집사 이민화 권사 탄금희 권사 김인순 권사

소신지서 강해-호세아

압복에 있는 유다

(호세아 12장 1 - 14절)



이중윤 목사

호세아 선지자가 50여년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각각 하나님을 떠나 제 길로 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뒤 그 아들 르호보암은 강경책을 쓰며 일을 급하게 처리하다가 남과 북이 갈라지는 슬픈 역사가 생겼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과중한 세금을 감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오히려 짐을 더 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북쪽의 10족속과 남쪽의 2족속이 각각 나뉘어 나라가 분열되는 부끄러운 역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721년은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넘어가기까지 200년간 남북은 분단 상태에 빠져있었고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1945년 이후 50여 년이 넘도록 분단의 비극을 안고 있는 것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데 200년이 넘도록 갈라져서 동족간에 싸움을 거듭하는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민족이므로 하나이다'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동족이지만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1. 유다의 죄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2절).

유다는 이스라엘의 죄와 비슷한 죄를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1절). 그들은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애굽에 조공을 보내면서 아침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호 4:1).

이스라엘은 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유다에 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로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싸웠다고 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속이는 것은 야곱의 대명사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야곱의 성품은 거짓으로 꼭 차서 하나님과도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힘써서 행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출생할 때부터 싸웠고 평생 속이는 일을 하며 마침내는 하나님과도 싸운 사람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4절).

한편 야곱은 울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간구는 히브리어로 '이드카멘'이라고 읽으며 긍휼을 비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이기는 기도, 우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하여 마침내는 환도뼈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이끌어내시는 사역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착한 행실을 하도록 하십니다. 옛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고 새 이름을 받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아 평생 도망꾼이 된 야곱은 20년을 일한 대가로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 31:3). 야곱은 베엘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다면 베엘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창 28:21-22).

그러나 야곱은 에서에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사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2. 호세아의 권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5-6절).

만군의 하나님이란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타인에게 공의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야곱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 유다가 변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실수하고 범한 죄를 책망 받았던 것처럼 유다 역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인애로 맞이해 주신 것처럼 유다 역시 다른 사람에게 인애와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3. 후기 역사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 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7-8절).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더불어 요셉의 두 아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은 상인으로 거짓 저울로 속이기를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재물을 의롭게 얻었다고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인정해야 할텐데 에브라임은 자신이 깨끗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상거래에 부정적이고,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비윤리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이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9절).

선지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하고 이상을 보여주는 사역을 합니다(11절).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할텐데 그들은 여전히 뒷발질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한 에브라임은 야곱이 압복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바로 그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때를 놓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무상을 따라갔습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롬 12:1) 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이끌어내시는 사역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착한 행실을 하도록 하십니다. 옛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억지로 하는 일이나 형식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만 살뿐입니다.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14절).

결국 에브라임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야곱을 통해서 배운바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3년을 짊어지고 나아갈 자들 (III)



조정식(스테반회 신임 간사)

2002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 세월이 지나고 다시 2003년도를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1년을 계산 할 때에 무엇인가 남기는 한해를 생각 할 때에 불충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둔하고 미련한 저에게 스테반회 간사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중책을 맡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성도여러분들께 부탁하기는 주신 직분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스테반회는 회원간 단합과 기도와 전도하는 스테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눈물과 기도로 지은 성전을 온전히 바치는 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성전을 채우는 한해가 되도록 전도에 최우선하겠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며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소의 권사 (마리아여전도회 신임회장)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내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진대 부족한 저에게 마리아 여전도회 회장직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만만 감사를 드리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 주시기를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무슨 유익한 일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살피는 여전도회,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하는 전도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마리아 여전도회는 회원이 많지만 아직도 전도회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회원들에게 참여를 부탁드리며 내년에는 마리아 회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활기차게 일하는 기쁘고 보람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회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유영준 집사 (안드레 남선교회 신임회장)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회원님과 가정에 늘 충만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안드레 남선교회는 만40세~만44세의 서울교회 남자 성도들로 구성된 선교회입니다. 2003년도에 우리 선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계획을 알려 드리니, 모든 회원들은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매월 한 차례 안드레 남선교회 월례회(경건회 및 친교와 교제의 시간)로 모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유익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 말씀 드립니다. 제각각 떨어져 있으면 사그러드는 나무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드레 남선교회 월례회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아! 이 분이 바로 그 분이구나!"라는 인사를 나누시고, 서로간의 얼굴을 잘 익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친교의 장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안드레 남선교회에서 농어촌교회 1개 교회(춘양 농어인 교회)를 매월 지속적으로 후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작은 후원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 안드레 남선교회가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예배시간에 위임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맨 처음으로 물으시는 질문이 있다면 아마 이런 질문일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안드레야, 너는 세상에 살 때에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말해 보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잘 답변하려면, 항상 깨어 있어 기도의 사명과 때를 얻든 지 못 얻든 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안드레 남선교회 회원님들이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2003년 새해가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전승순 권사 (에스더 전도회 신임회장)

타다 남은 부지깅이 같은 저에게 에스더 전도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십이 넘어서야 주님을 영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었는데 이런 과분한 직분을 맡고 보니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낙심하는 모세에게 아론이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능력 많은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생깁니다.

부족한 저는 회장직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믿음과 열심히 있는 동역자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많은 분들이 부지런히 도울 데니 열심히 하라는 용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여 후회없이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에는 내 생애에 최고로 값진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영주 성도 (빌립 선교회 신임회장)

먼저 이 부족하고 모자란 저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30대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배워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빌립 선교회는 장차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준비의 단계에 놓여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체 빌립 회원의 상호간의 화합이 중요하며 교회 내에서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찾아서 노력할 수 있도록 서로간의 관심과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 봉사 부서를 찾아서 노력하는 내년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회원 각자가 믿음이 성숙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꼭 물려 돌아가는 알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가 되길 소원합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으며 빌립 회원 및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빌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박민숙 집사(도르가 전도회 신임회장)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미숙한 제가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도르가 여전도회에서 봉사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는 가운데서도 참가 회원이 증가한 것과 이를 바탕으로 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더 갖게 된 것과 봉사에 직접 참가한 회원수가 늘어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가시적인 양적 성과보다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중에 회원들간에 서로 섬기고 우애하는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전도회 안에서의 직분을 떠나서 모든 일을 자신의 일처럼 봉사하고 도와준 회원들, 모임에 자주 나오지는 못하지만 회비로 재정을 든든하게 도와준 회원들, 신앙적으로 미숙한 저를 격려하고 이끌어준 선배 같은 회원들 덕분에 지난 한해를 보람있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낙심 중에 있을 때 교구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비롯한 여러 교우들의 위로와 기도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간의 진한 사랑과 헌신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섭리하심과 돌보아주시심을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올해 사고로 몇 달간 맡기신 직분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이유로 2003년 도르가 회장으로 한번 더 봉사케 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라 여기고 도르가의 선행을 좇아 구제와 봉사, 그리고 전도와 친교를 나누는 진정한 도르가 여전도회가 되는데 작은 밑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대하지는 못했지만 결코 미미하지도 않았던 올해를 바탕으로 2003년에는 더 큰 승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숙인 집사(루디아 전도회 신임 회장)

교회는 세상사람들보다 먼저 한해의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부지런함으로 앞서 갑니다. 게으른 저를 세워 주심도 부지런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허허로운 벌판 같은 루디아를 일년동안 힘써 일해 뼈대를 이루고 일할 일꾼들을 많이 발굴하고 힘써주신 김유경 전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배 집사님들의 본을 받아 낮설고 서먹서먹한 회원들을 이끌고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교회가 섬기는 단체들, 농어촌 100교회 돕기를 물질만이 아닌 시간으로도 봉사하도록 할 것이며, 교회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들의 힘과 시간을 모으고 아울러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특히 직장관계로 여전도회에 소속되었으면서도 회원으로서 아쉽게도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회원들의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로 후원회 주십시오.

젊은 부부들의 공동체

-신혼가정부-

옥중호 성도(12교구)

부족한 저를 신혼가정부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은 신혼가정부가 부흥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혼가정부는 서울교회의 결혼 5년 이하의 젊은 부부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가정마다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로 인해 복음이 대를 이어 계속되기를 기도하며 부부간에는 말씀으로 하나되고 교회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며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티 위에 굳게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예배를 통해 각 가정이 기도와 말씀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으며 이는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난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혼가정부에서는 매년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며 그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어찌면 신혼가정부는 어린 아기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젖으로 삼아 매년 잘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신혼가정부는 각 신혼가정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지켜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또한 신혼가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와 말씀을 통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신혼가정부 회원들

2003년도 100교회 후원현황

(12월 15일 현재, 다음호 계속)

번호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63	지아철 선교회	유장진	도르가
64	평화의집교회	김영환	노병호·홍지나
65	계곡제일교회	김대영	하영수·박정순
66	구서교회	박준길	이경선
67	금성교회A	장성도	나미용
68	덕호교회	문선호	이영주·최양혜
69	동광 교회	김석배	엘리아
70	갈분교회	이근주	엘리아
71	마산동부교회	박훈	모세
72	동정교회	정창석	최나수
73	송천교회A	최인철	홍승진·황영임
74	신촌교회A	이성규	장두현·이미송
75	오마교회	최기철	권사희
76	장광년교회	김영석	권사희
77	제중중앙교회	김석이	마리아
78	태백 서부교회	김홍렬	마리아
79	행양교회	박용자	마리아
80	금호교회	김기룡	마리아
81	은성교회	소정의	마리아
82	신덕교회A	정영석	모세
83	백마교회	김우동	이영주·최양혜

새벽 별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여의철 집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고단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새벽 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의 지휘를 맡아 주일 아침을 고대하며 살아온 지가 어언 1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동역자들과 더불어 가브리엘 찬양대를 이끌어오며 맛있던 기쁨의 순간들과 때때로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 느꼈던 절망감. 이 모든 것들이 버팀목이 되어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받쳐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를 지켜주신 분은 새벽 별 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번에 연주할 성탄절 칸타타 새벽 별을 작·편곡한 조엘 마틴은 현존하는 미국의 작곡가로서 현재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교회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음악은 무겁지 않으나 결코 가볍지 않은 힘과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찬양의 세계로 이끌고 갑니다.

때로는 장엄하게, 때로는 감미롭게 표현된 칸타타 새벽 별은 전 10곡으로 되어있고 팀과니와 트럼펫이 협주하며, 헨델의 할렐루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사랑의 계절 성탄절, 가브리엘 찬양대와 함께 하는 이번 성탄연주회는 실로 소고와 수금과 비파와 호호이 있는 모든 자들이 새벽 별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락방 사례 (10-10다락방) 주경자 권사(10교구)

우리 10-10 다락방을 소개합니다. 우리 다락방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40KM나 떨어진 퇴촌의 이완형 장로님 가정부터 성남에 위치한 저희 집까지 교회와의 거리는 매우 멀지만 그만큼 가족들이 예배에 힘쓰고 또 다락방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멀지만 사실은 가까운 다락방입니다.

또한 저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다락방입니다. 각각의 삶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틈틈이 다락방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수요일 예배 후에 다니엘 기도회로 모여 서로의 기도제목들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또 응답 받은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번 박연순 권사님이 미국으로 파남 산후 간호하러 가시기 전에 저희는 모여서 이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 곳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아들을 순산했답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아니할 수 있습니까? 뒤늦게 그 소식을 접한 저희들 모두가 어찌나 하나님께 감사

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중보기도에 신이 나서 모여 기도하는 것이 즐겁기만 합니다.

말로만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예배를 비롯한 공예배 출석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구역예배 또한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번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에 돌아가면서 부부동반으로 모여 연합다락방 예배로 모이고 있으며 교회를 위해 기도와 전도를 하자는 제의에 같은 마음을 품고 뜻을 같이하여 수요일 예배 후기도모임을 가진 후 시간을 내어 전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락방은 모두들 생각만 해도 한가죽같이 위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서울교회의 한 지체로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다락방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를 섬기기 위하여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아래 더욱 더 성장하고 더 깊이 사랑하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10-10다락방 소개를 마칩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6일(월) 서울여대이사회, 17일(화)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번역위원회, 19(목) 총회주제 위원회에 참여하는 소집을 한다.
- 기증: 이남호 장로 여옥기 권사 가정 백미 1가마 기증
- 독남: 10교구 박창수 성도, 서현진 성도 가정
- 인대진집사, 김경희집사, 허숙집사, 이윤진집사 교회트리 장식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 금주의 식사: 살림권사회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 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감사하는 성도·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2. 연말연시를 보람있고 뜻있게 지낼 수 있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12월 19일(목)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